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26. 3.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I. 반부패 관련 해외 동향 및 국제회의의 결과

- [우즈베키스탄, 지방 반부패 노력 강화 위한 “청렴의 섬” 모델 채택](#) 01
- [2026년 사이버범죄에 대해 알아야 할 것](#) 05
-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선언」](#) 11
- [2025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 의장 성명서](#) 19
- [제14차 IACA 당사국총회 일반사항 결의문](#) 25
- [제11차 UNCAC 당사국총회 : 2025 도하 선언문](#) 33

II. 옴부즈만 소식

- [홍콩 옴부즈만 3대 전략적 중점분야로 지역사회에 성과·혜택 제공](#) 38
- [조지아 옴부즈만 사무소, 민간 기업 직원 대상 교육 실시](#) 40
- [파나마 옴부즈만 사무소,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보호 진전상황 발표](#)41
- [캐나다 온타리오 옴부즈만, 발달장애 성인의 불필요한 입원 방지 위한 협력 강화 및 계획 촉구](#) 43
-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PRD\)을 이행하지 않는 연방 및 주정부](#) 46

본 자료들은 비공식 번역본으로, 원문은 기재된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반부패 관련 해외 동향 및 국제회의 결과

 **목차**

우즈베키스탄,

지방 반부패 노력 강화를 위한 “청렴의 섬” 모델 채택

SDG Local Action, 2025. 10. 23.

* 출처 : Uzbekistan adopts “Islands of Integrity” to strengthen local anti-corruption efforts (2025.10.23., SDG Local Action)

<https://sdglocalaction.org/uzbekistan-islands-of-integrity/>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청렴성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보호, 시민 신뢰 형성 그리고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 “청렴의 섬(Islands of Integrity)” 도입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기관의 건전성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도입 배경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정치적 전환 이후, 반부패를 국가 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 2020년에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반부패청을 설립하고, 독일 국제협력청(GIZ)과 유엔개발계획 우즈베키스탄(UNDP Uzbekistan)이 주도하는 EU 지원 프로그램인 “우즈베키스탄 거버넌스 개선”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왔다. 이 계획은 법적·제도적 개혁을 실행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며,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반부패 문화를 조성하는 활동을 담고 있다.

이 틀 안에서 “포괄적 부패 예방” (GIZ 주도) 및 “우즈베키스탄 국가 반부패 생태계 강화” (UNDP 우즈베키스탄 개발, EU 위원회 재정지원) 두 프로젝트

트가 진행되었으며, 두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의 14개 전 지역을 아우른다.

문제 인식과 해결책

UNDP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스탄 국가 반부패 생태계 강화” 프로젝트는 부패가 특히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가와 지방 수준의 반부패 개혁 효과 간 격차가 존재해, 지방 시스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여겨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가 개발한 “청렴의 섬” 방법론을 시범 도입했다. 이 방법론은 전략적 참여 과정을 통해 부패 취약 공공정책과 조직 구조를 분석하고, 내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위험과 해결책을 공유하며 이들이 변화 주체로 활동하도록 유도, 지속 가능한 개혁과 참여를 촉진한다.

이 접근법은 중·동부·남동부 유럽 11개국, 30개 지방정부에서 시행되었고, 2011년 UN 공공서비스상도 수상했다.

실행 단계

“청렴의 섬” 방법론은 다음 단계를 포함한다:

상황 분석 ▶ 청렴 전략 및 실행 계획 초안 작성 ▶ 공청회 및 피드백 확보 ▶ 승인을 위한 초안 제출 ▶ 특정 지역에서 정책, 절차, 메커니즘 실행 ▶ 교육, 홍보 및 지지 ▶ 결과 검증

2024년 12월~2025년 1월 사이, 60명 이상의 지방정부 관계자가 부패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책을 개발하며, 2025~2026년 전략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된 워크숍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이 개념은 페르가나(Fergana) 지역 알티아릭(Altairik) 구, 수르칸다리아(Surkhandarya) 지역 데나우(Denau) 구,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공화국 무이나크(Muynak) 구 등에서 적용될 계획이다.

실행 프로그램

정부 기관의 부패 위험 식별·예방·제거를 목표로 하고 투명성, 책임성, 자기 규제 강화에 기반하는 “투명도시(Transparent Cities)”와 “청렴 지방정부(Municipalities of Integrity)” 프로그램은 “청렴의 섬” 접근법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국제 기준을 우즈베키스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지방정부 내 청렴 우수 구역을 설정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12월부터 타슈켄트 미르조 울루그벡(Mirzo Ulugbek) 구, 지자카(Jizzaka) 시, 부하라(Bukhara) 지역 보브켄트(Vobkent) 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방 적용

2025년 5월까지 보브켄트 구는 부패 위험 사전 평가를 수행하고 부패예방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법론 개발자인 아나 바실라체(Ana Vasilache)를 초빙하여 반부패 실무자들을 교육하고 멘토링했다. 이들은 이후 보브켄트의 27명 지방 공무원과 협력하여 허가, 조달, 공공시설, 점검 등 부패 취약 영역을 분석했다.

이러한 노력은 보브켄트 구의 2025~2026 전략 로드맵 수립으로 이어졌다. 로드맵은 구 단위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으며 시민 중심적인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투명성 보장을 위한 공공조달의 디지털 감독 및 독립적 모니터링 구축
- 직원 청렴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및 교육 제공
- 거버넌스에서 시민 피드백과 참여 강화

교훈

체계적인 개혁에서 지역화(Localisation)는 필수인바, 국가 반부패 전략은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될 때 더 큰 효과를 낸다.

또한 협력과 역량 강화는 청렴성을 증진한다. 국제기구, 국가 기관, 지방정부 간 협력은 반부패 원칙을 실질적 행동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 간 협력과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진단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다. “청렴의 섬” 방법론은 위험 지도화와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부패 노력을 진단한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가 각자의 고유한 거버넌스 환경에 맞게 개혁을 주도적으로 수용·조정·제도화할 수 있도록 할 때 청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2026년 사이버범죄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2025. 10. 22.

* 출처 : What to know about cybercrime in 2026 (2025.10.10., UNODC)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5/October/what-to-know-about-cyber-crime-in-2025.html>

사이버범죄는 번성하고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 성장해 전 세계 정부, 기업 및 개인을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상당 부분이 정보통신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누구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다.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은 2025년 10월 25일 서명을 개시했으며 현재 74개국이 서명했다. 사이버범죄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과 이 협약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 범죄자들은 악성 소프트웨어(랜섬웨어를 포함한 악성 프로그램)를 이용해 디지털 시스템에 침투하여 돈, 데이터 및 기타 가치 있는 자산을 훔친다.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마약, 무기 또는 인신매매, 자금세탁,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

사이버범죄와 전통적 범죄의 차이

익명성과 물리적 위협의 부재: 마약 밀매와 같은 전통적 범죄는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현장에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약을 제조하거나 재배하

고, 운반하고, 판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록 범죄 조직의 배후인 '큰손'을 추적하는 것보다 하위 조직원을 잡는 것이 훨씬 쉽지만, 각 단계마다 적발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이버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기본적인 컴퓨터 장비만 있으면 어디서든 이동없이 피해자에게 사기를 치거나 데이터를 훔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는 진입 장벽이 낮고 물리적 위험이 적다.

지리적 한계 부재: 사이버 범죄자들은 범죄 현장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어 '관할권 쇼핑'이 가능하다. 즉, 법 집행 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도시, 주 또는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규모와 속도: 이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일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사기는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수백 개의 관할 구역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어, 법 집행 기관의 협력과 대응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흐름

사이버범죄에 이용되는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자들은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자동화: 사이버 범죄자들은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저지르기 위해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피싱(피해자를 속여 비밀번호나 금융 정보를 빼내는 행위)은 이제 '피싱 키트'나 플랫폼 - 즉, 미리 만들어진 악성 웹사이트 및 이메일 템플릿- 의 사용으로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자들은 수천 개, 심지어 수백만 개의 피싱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다른 이들은 봇넷, 즉 한 공격자의 통제하에 있는 악성코드 감염 컴퓨터나 기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공격자는 봇넷을 통해 수천 대의 기기에 원격으로 명령을 내려 악성코드나 스팸을 동시에 유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명과 비밀번호 조합을 노출하는 데이터 유출은 '크리덴셜 스테핑 (credential stuffing)'에 활용된다. 이는 도난당한 인증 정보를 여러 웹사이트에 걸쳐 빠르게 테스트하는 자동화 기법으로, 비밀번호를 재사용하는 사용자를 표적으로 삼는다.

자동화는 또한 불법 자금을 이체하고 그 출처를 위장하는 데 사용되는 계정인 '물 계정(mule account)' 생성으로 자금 세탁에도 활용한다. 봇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도난당하거나 조작된 신분으로 여러 물 계정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인공 지능(AI)

생성형 AI: 생성형 AI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딥페이크' 동영상, 이미지, 오디오를 생성하여 매우 설득력 있지만 조작된 사칭을 진행하며 사람들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인간 대화를 모방하고 처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AI 챗봇과 결합하여, 이러한 기술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정교한 사칭 사기를 꾸미도록 한다. 피해자들은 사기꾼을 친구, 가족 또는 동료라고 믿고 무심코 돈을 송금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사기 조직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국어 챗봇을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기꾼은 AI가 콘텐츠 작성, 번역 및 맞춤화 작업을 담당하는 동안 다수의 피해자와 동시에 소통한다.

다른 범죄 조직들은 사진, 소셜미디어 콘텐츠, 가짜 신분증, 온라인 흔적까지 갖춘 완전히 허구의 디지털 신원을 생성하는 데 AI를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실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게 만든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가짜 인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사기성 관계나 투자 사기로 유인한다.

생성형 AI 도구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AI를 도구에서 무기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으며, 기술이 부족한 해커조차 AI 시스템의 윤리적 지침을 우회하고 악성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조직들은 심지어 WormGPT와 같이 안전장치 없이 작동하는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시키기도 한다.

기계 학습: AI 기계 학습은 데이터 내 패턴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훈련된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나 추론을 할 수 있다.

AI 머신러닝 모델은 공격의 효과성과 파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모델은 유출 정보, 공개 자료 또는 내부 문서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대상의 보안 보호 장치, 가장 취약한 지점 또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식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 범죄자들은 정밀성, 속도, 최대의 파괴력을 갖춘 공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확보한다.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와 중요한 기밀을 훔치기 위해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랜섬웨어를 배포해 중요한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되찾기 위해 대상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할 수 있다. 심지어 AI를 활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평가하고 맞춤형 가격을 책정하기도 한다.

게다가 악성코드는 머신러닝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도록 설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감시 상태에서는 잠복 상태를 유지해 탐지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식이다.

서비스형 사이버 범죄: 많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군가는 다크 웹에서 한 판매자에게 랜섬웨어를 구매하고, 피싱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그룹에 연락하며, 또 다른 전문 그룹에게 취약점 악용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술적 역량이나 관련 인맥이 전혀 없는 사람조차 최소한의 투자로 사이버범죄를 실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이버범죄가 다른 범죄를 촉진하는 방식

인터넷과 통신 기술은 이미 범죄자들의 사업 방식을 변화시켰다.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게재하는 이민 밀수업자부터 불법 온라인 시장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 밀매업자, 인터넷을 이용해 익명성을 유지하는 자금 세탁자에 이르기까지, 사이버범죄는 전 세계 범죄자들의 사업 모델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인공지능(AI)은 범죄 조직이 법 집행 기관의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 조직이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CCTV 네트워크에 통합하여 잠복 경찰관이나 표식이 없는 경찰 차량을 탐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이민 밀수업자나 인신매매범들은 AI 모델을 활용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긁어내어 재정·고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개인, 즉 사기성 채용 계획에 더 취약한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의 위험성

우리의 안전, 사생활, 공공 신뢰에 위협: 아동을 포함해 누구나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은 온라인에서 유인·조작·강요의 위협에 노출된다. 건강 진단 기록, 은행 계좌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개인 정보가 도난당해 신원 도용이나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의 안보에 위협: 사이버 테러리스트를 포함한 사이버 공격은 공공 상수도 시스템, 전력망, 교통 시스템 또는 의료 서비스를 마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은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훼손하고 공중 보건을 위협하며 심지어 인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의 번영에 위협: 사이버 범죄자들은 기업과 개인 모두를 고갈시키고 있다. 기업은 시스템 접근권을 되찾기 위해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거나 데이터 유출 후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은퇴자들은 투자 사기로 평

생 모은 돈을 잃을 수 있으며, 일반인들은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로 수천 달러를 사기당할 수 있다.

현재 사이버범죄 수사 및 기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점

사이버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한 국가에, 피해자는 열 개국이 넘는 다른 국가에, 전자 증거는 완전히 다른 곳에 위치할 수 있다. 게다가 전자 증거는 매우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이버범죄 단속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전문 지식과 도구가 필요하다. 많은 지역에서 범죄 대응에 투입되는 자원은 위협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전자 증거의 수집, 공유 및 국경을 초월한 활용 능력은 국가들이 사이버범죄를 기소하는 데 주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일관된 국제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한 국가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가 다른 국가에서는 기각될 수 있다.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이 가져올 개선 사항

전자 증거의 수집 및 공유: 2025년 범죄 기소는, 사이버범죄 자체든 정보통신기술로 가능해진 다른 범죄든 거의 항상 전자적 증거에 의존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모든 비준국이 전자 증거를 일관되게 정의하고 수집 시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 국가가 사이버범죄 기소를 위해 다른 국가와 전자 증거를 공유할 때, 해당 증거가 수신국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협력: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함으로써 각국은 사이버범죄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며 테러 및 초국적 조직범죄의 규모, 속도, 범위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협약 하의 일관된 국제 규칙과 규정, 공유된 전문성과 자원, 강력한 정치적 의지는 사이버범죄 예방 및 기소를 효율화하여 국제적 대응을 가속화하고 더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구축할 것이다.

□ **2025 APEC 정상회의 「 경주 선언 」**

대한민국, 경주 | 2025년 11월 1일

1. 우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만났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이라는 올해 APEC 주제 아래, 서울, 부산, 제주, 인천 등 한국 도시에서 만남을 갖고 세 가지 중점 과제, 즉 ‘연결, 혁신, 번영’을 통해 우리 공동의 목표들을 진전시켜 왔으며, 풍성한 문화유산을 지닌 천년 고도 경주에서 그 결실을 맺었다.
2.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D)과 같은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APEC 회원들에게 중대한 장기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역내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이자 아이디어 육성의 장이라는 APEC의 중요성과 역할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PV)」이 제시한 공동의 사명에 의거해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APA)」의 이행을 포함해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2040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연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상호연결된 지역 경제 구축

4. 우리는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 회원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5.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회원간의 경험 공유, 역량 강화, 기업 참여, 기술 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이를 통해 회원들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역내 협력체제에 참여할 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6. 우리는 서비스 부문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APEC 역내 회원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 2016-2025)이 APEC 역내 서비스 부문의 효과적인 개혁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해 왔음을 주목한다.
7. 우리는 투명성 제고, 종이 없는 무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 표준에 관한 협력 심화,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 다양한 무역 원활화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무역 비용을 낮추고,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의 국경 간 무역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하며, AI 도입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자발적 경험 공유를 장려한다.
8. 글로벌 공급망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민간 부문의 APEC 관련 논의 참여 확대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 요소로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 계획 3단계(SCFAP III, 2022-2026)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교란의 영향을 완화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역내 및 글로벌 연계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강화, 기술 지원 및 국경 간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9. 우리는 구조 개혁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혁신, 생산성 및 역동성을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새롭고 강화된 프레임워크로서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SEAASR, 2026-2030)의 채택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재무장관 프로세스 하에서 인천 플랜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10. 우리는 부패가 국경을 초월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공공 신뢰를 훼손하며, 조직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반부패 노력이 보다 혁신적이고, 긴밀히 조율되며,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부패 행위자와 불법 자산에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1. 우리는 역내 연계성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2026년에 완료 예정인 최종 검토를 포함하여 ‘APEC 연계성 청사진(2015-2025)’ 과 연계된 노력을 주목한다. 우리는 역내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데 있어 기업간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를 통한 기업 이동성 촉진 및 연결성 강화 노력을 환영하고, ABTC 참여 회원들이 모바일 기업인 여행카드의 활용과 수용을 확대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우리는 양질의 인프라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12. 우리는 문화창조산업(CCIs)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며,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문화창조

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회원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또한 문화창조산업이 역내 경제 및 문화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창작·제작·유통·소비 전반에서 창의성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APEC 회원간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주목한다.

혁신: 디지털 및 AI 전환에 준비된 아태 지역

13. 우리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APEC 지역 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또한 우리는 과학·기술·혁신(STI) 분야를 포함한 기관, 기업, 스타트업 간의 연구개발 협력과 과학 인재의 자발적 교류, 정책 및 지식의 자발적 공유, 그리고 역량 강화 노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14.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 주도하는 혁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모든 사람과 기업의 연계성, 생산성 및 참여를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잠재적인 경제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회원들이 지역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 정책과 관련한 자발적 정보 공유를 적절히 확대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AIDER의 효과적인 실행을 진전시키기 위한 올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기회를 극대화하고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을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제고하는 정책, 그리고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연계성 향상, 디지털 문해력 증진,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국민, 근로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을 위해 디지털 및 AI 생태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데이터 흐름 촉진과 디지털 거래에서 기업 및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5. 우리는 인공지능(AI)이 혁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경제적 번영 및 회복력 제고를 통해 전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APEC 내 성공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고, 역내 협력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AI 역량을 구축하며,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한다. 우리는 또한 노동력, 교육, 역량 강화 정책에서 균형 있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보안성, 접근성,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우리는 회원들이 AI 전환의 혜택 누리고 모든 사람이 AI 기반 경제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적 접근을 탐색할 것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AI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장려한다.

번영: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의 혜택을 모두와 공유

16.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민이 성장과 번영의 기회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경제 참여의 장벽을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경제적 역량 강화를 촉진하며,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PEC의 기존 및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한다.

17. 우리는 기업가 정신 함양, 규제 장벽 제거,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대

기업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간 연계 강화, 생산성·효율성·혁신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공식경제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리마 로드맵(2025-2040)’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각 회원이 기울여 온 노력에 주목한다.

18. 저출생, 인구 고령화, 도시화의 가속화로 특징지어지는 인구구조 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이 포괄적이고 세대 간 정책을 통한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APEC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과 번영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우리 지역의 미래 번영이 다음 세대의 역량 강화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의 기회와 필요한 도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길 기대한다.

19. 우리는 에너지, 식량안보, 환경, 극한 기상 및 자연재해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 보다 회복력 있는 아시아·태평양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APEC 지역 전반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회원들이 전력원과 기술을 다양화하고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시장 설계와 에너지 속성 인증서와 같은 시장 기반 수단을 활용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회복력,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도모할 것을 장려한다. 이 모든 노력은 각국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연가스와 LNG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와 확충이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전력망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집약도와 관련된 논의를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서 AI가 지닌 혁신적 잠재력에 주목한다.

20. 우리는 식량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혁신적인 농식품 시스템을 촉진하며, 식량 손실과 낭비를 방지 및 감소시키고, 농업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에는 모든 경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해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21. 우리는 또한 과학·기술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증가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 대응을 포함해 해양 및 연안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해양 자원의 보전과 관리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22. 우리는 역내에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접근가능하고, 연령 대응적이며, 다부문적이고 미래 대비형 보건 및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와 AI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조기 발견, 진단, 치료 및 전반적인 건강 성과를 향상시키는 혁신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재난 위험 관리가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임을 인정하면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래 전망

23. 우리는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가 APEC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로서 아이디어 육성의 장으로서의 APEC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및 태평양경제협력 이사회(PECC)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포함해 APEC CEO 서밋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24. 우리는 2025년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와 해양, 고용노동, 교육, 통상, 디지털·AI, 식량안보, 여성과 경제, 에너지, 중소기업, 보건과 경제, 재무 및 구조개혁 관련 장관회의, 그리고 반부패 협력 및 문화창조산업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제36차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의 성과를 향후 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높이 평가한다.
25. 우리는 2025년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정상회의를 위한 따뜻한 환대와 철저한 준비로 성심껏 맞아 주신 경주 시민과 경주시에도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향후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2026년), 베트남(2027년), 멕시코(2028년), 싱가포르(2030년), 일본(2031년), 칠레(2032년), 파푸아뉴기니(2033년), 페루(2034년)의 역할을 기대한다. 끝.

원문 출처 :

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2025/2025-apec-leaders-gyeongju-declaration

□ 2025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ACWG) 의장 성명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음푸말랑가 | 2025년 10월 30일

1.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G20 의장국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G20 반부패 의제와 아프리카연합(AU)의 '아젠다 2063'에 명시된 우선순위 간의 핵심적 연계성을 강조할 기회를 마련했다. 2025년 반부패실무협의단(ACWG)의 우선순위 수립에 있어 G20 의장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특히 16번 평화, 정의 및 강력한 기관에 관한 목표를 지침으로 삼았다. 이는 부패가 2025년 G20 주제인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의 각 기둥을 훼손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24년 10월 브라질 나탈에서 개최된 G20 반부패 장관회의에서 승인된 G20 ACWG 2025-2027 행동계획에 근거한다.
2. 202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의장으로 한 ACWG의 우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투명성, 청렴성 및 책임성 증진을 통한 공공부문 강화
 - 자산회복조치, 특히 몰수 자산의 관리 효율성 증진
 - 공공·민간 부문, 시민사회 및 학계의 포괄적 참여 강화와 동원을 통한 부패 예방과 퇴치
 - 내부고발자 보호 메커니즘 강화
3. 우선 분야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이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했다. 비록 장관 선언문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의장국은 아래에 열거된 문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2025년 내내 ACWG가 광범위하고 협력적인 작업을 수행했음을 강조한다.
 - 투명하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공무원 육성을 위한 모범사례 모음집
 - 자산회복을 위한 기술 지원, 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이니셔티브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
 - 압수 및 몰수 자산관리에 관한 고위급원칙
 -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있어 다중 이해관계자 역할에 관한 모범사례 모음집
 - 2025년 내부고발자의 효과적 보호에 관한 이행보고서

4. 따라서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대다수 합의 사항을 반영한 아래 논의 요약은 의장 책임하에 공개되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개별 국가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된다.

요약

5. 부패 방지 및 척결을 담당하는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장관 및 당국자들은 2025년 10월 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 주재로 음푸말랑가에서 회합하였다. 대표들은 부패 척결 노력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공동의 약속과 헌신을 재확인하였다. 남아공의 G20 의장국 주제인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에 따라 대표들은 공정성과 정의 증진, 신뢰 구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보다 평등하고 협력적이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조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반부패 조치가 필수적임을 인정했다.
6.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ACWG) 창설 15주년을 맞아 대표들은 과거 의장국들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며 이 견고한 유산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대표들은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사항을 포함한 기존 G20 반부패 공약을 인정하고 재확인했으며, 개별 및 집단적 진전을 모두 고려하면서 이러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결의를 강조했다. 대표들은 또한 ACWG가 성과와 영향력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7. 대표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엔반부패협약(UNCAC)이 반부패 노력을 위한 포괄적 틀을 제공함을 인정했다. 대표들은 국제협력 및 자산회복 노력 강화, 외국 공직자 뇌물수수 범죄화 및 효과적 법집행을 위한 필수 입법 마련을 포함한 UNCAC 의무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ACWG의 노력과 성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명성·청렴성·책임성 강화에 대한 ACWG의 중요한 기여를 인정했다. 대표들은 부패 퇴치를 위한 최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상호 및 관련 국제·지역 기구와 협력할 것이다.
8. 대표들은 UNCAC 및 유엔 초국가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을 포함한 기존 국제적 의무 이행과 자산 회복 및 실소유권에 관한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기구(FATF) 권고안을 포함한 FATF 기준 준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들은 실소유권 투명성에 관한 고위급 원칙 및 부패 퇴치를 위한 자산 회복 메커니즘 강화에 관한 고위급 원칙 등 과거 G20 성과물을 상기했다.

9. 대표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강조한 우선 분야 중 하나인 자산회복에 대해 ACWG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유념했다. 자산회복 관련 도전 과제가 여전함에 따라, 대표들은 UNCAC에 부합하는 기존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면서 자산 회수 및 반환의 효과성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결의와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표들은 부패 범의자와 부패를 통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들은 자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부패 관련 압수·몰수 자산관리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과 '자산회복을 위한 기술 지원,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 이니셔티브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환영했다.
10. 대표들은 합리적인 기간 내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없이 유엔반부패협약(UNCAC)에 부합하는 자산 회수 및 반환 분야에서 직접 자산회복 및 사법공조를 통한 효과적, 효율적, 신속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들은 예를 들어 가능한 경우, 글로벌 부패방지 법집행 기관 간 운영 네트워크(GlobE Network), 캠퍼 기관 간 자산회복 네트워크(CARIN), 지역별 자산회복 기관 간 네트워크(ARINS) 등 관련 실무자 네트워크에 참석,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및 에그몽 그룹이 개발한 역량을 활용하여 부패방지 법 집행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지지한다. 대표들은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 하에 제시된 지역적 이니셔티브, 즉 자산 회복에 관한 아프리카 공동 입장(CAPAR) 하에 설립된 아프리카 실소유자 정보 네트워크(African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Network) 및 아프리카 자산회복 실무자 포럼(African Asset Recovery Practitioners Forum)을 주목하고 환영하였으며, 자산 추적, 회수 및 반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추가로 인식하였다.
11. 대표들은 공공부문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청렴성, 책임성 및 투명성 증진과 강화에 대한 G20의 의지를 반복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들은 특히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칙 및 시스템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행동 강령 및 기타 윤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대표들은 공공 업무 및 재산의 적절한 관리, 공공 자원의 효율적 사용,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조달 절차, 공공기관 내 효과적인 정보 접근을 포함한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 하에 편찬된 우수사례 모음집은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공공 서비스 문화를 보장하기 위한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환영받았다.

12. 대표들은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의장국 하에 작성된 부패 예방 및 퇴치에 있어 다중 이해관계자의 역할에 관한 우수 사례집을 환영했다. 대표들은 각국이 국내 법적 체계에 따라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지역 사회 기반 단체 및 언론과 같은 공공부문 외의 개인 및 단체의 적극적 부패 퇴치 활동 참여를 장려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들은 우수사례와 지식공유를 활용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13. 대표들은 접근가능하고 다양한 신고 채널을 마련하고, 2019년 G20 내부 고발자의 효과적 보호에 관한 고위급 원칙을 고려하는 등 부패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체계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따라서 대표들은 G20 및 초청국들이 이 분야에서 시행한 입법 개혁 및 기타 조치를 강조한 2025년 G20 이행보고서를 환영했다.
14. 대표들은 정보 보안, 데이터 보호, 사생활 및 기타 개인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고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 대표들은 또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자산 회복 노력을 강화하며, 부패 의심 사례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며, 공공 자금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지식 교환, 수집 및 보급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ACWG는 또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여 투명성, 개방형 정부, 책임성, 거버넌스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부패 기회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15. 부패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관련 법률, 정책 개발, 연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이를 적절히 주류화하고, 각국의 국내법 기본 원칙에 따라 수행하는 동시에 여성의 반부패 노력 참여를 증진하고 이와 관련된 우수사례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16. 대표들은 가용 자원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직위에 적합한 반부패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G20 국가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요청국에 적절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구축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요청국에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G20 국가 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7. 대표들은 부패 측정 및 반부패 정책·조치의 효과성 평가 분야에서의 작업을 지속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기구,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장려했다. 대표들은 2025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부패 측정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라는 제목의 글로벌 컨퍼런스 제2차 회의 결과를 기대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장려했다.
18. 대표들은 2025-2027 행동계획 하에 채택된 공동 실질적 우선과제에 반영된 기존 국제적 의무 및 G20 공약 이행에 중점을 두어 G20 반부패 실무 협의단(ACWG)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재확인했다.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부패 사건에서의 자산 회복 및 국제협력·사범공조; (2) 자금세탁방지 및 실소유권 투명성; (3) 해외 뇌물방지; (4) 공공부문 투명성, 청렴성 및 책임성; (5) 민간부문 투명성 및 청렴성 대표들은 책임성 증진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 이러한 약속에 대한 개별 및 공동 진척 상황을 연례 이행보고서를 통해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했다. 대표들은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부패 위험 대응에서 ACWG의 의미 있는 역할을 인정하고, 새로운 부패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완화하기 위해 모범을 보일 것을 재차 다짐했다.

19. 대표들은 ACWG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 국제기구 및 G20 참여그룹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이 ACWG에 초청한 국제기구들, 즉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인터폴(INTERPOL),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프리카개발은행(ADB) 등이 ACWG 성과물 마련에 기여한 전문성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20. 마지막으로, 대표들은 2025년 ACWG를 이끌어 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과 공동 의장국인 브라질에 감사를 표했다.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 아래, ACWG는 2025-2027 ACWG 행동계획에 명시된 목표를 계속 추구하며, 인권, 적법 절차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면서 부패를 퇴치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 공정성, 정의에 기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여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더 나은 공공 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결론적으로,

21. 부패는 국내 자원 동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개발에 활용 가능한 재정적 수단을 제한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도전과제이다. 이는 시장의 청렴성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또한 공공의 신뢰를 약화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부패의 진화하는 복잡성은 방치될 경우 정부 간 협력 노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세계적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ACWG)은 반부패 조치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어떻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핵심 포럼 역할을 한다. 올해 G20이 반부패 장관 선언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으며, G20 ACWG가 이러한 노력을 주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향후 G20 의장국들이 이 임무를 이어받아 G20이 글로벌 반부패 이니셔티브 추진에서 계속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원문 출처 : <https://www.g20.org.za/track/anti-corruption>

회의 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www.(btis.mom.go.kr)

□ **제14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 : 일반사항에 관한 결의문**

오스트리아, 비엔나 | 2025년 11월 4일

당사국 총회는,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설립협정(이하 “본 협정“)에 대한 약속을 상기 하며,

현재 모든 지역의 국가들과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82개 당사국으로 구성된 IACA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구성원을 만족스럽게 환영하며,

부패방지 분야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협정 수가 증가하여 IACA의 임무 수행에 기여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증진하고 있음을 유념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IACA가 반부패 관련 학술 프로그램, 교육, 연구 및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 하며,

카타르 도하에서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될 제11차 유엔반부패협약(UNCAC) 당사국총회에 아카데미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민주주의, 윤리, 정의의 제도와 가치를 훼손하고 평등한 기회, 지속가능한 발전,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의 사회 안정과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 과 위협에 대해 우려하며,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조성, 모든 사람을 위한 사법 접근성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기관 구축을 목표로 하는 목표 16 및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세부 목표 16.5를 상기하며,

IACA가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고품질의 반부패 및 규정 준수 학술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최빈국 및 신흥 경제국을 포함한 협정 당사국 및 서명국, 기타 국가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적절할 경우 균등한 기회, 차별 금지, 성별 균형, 다양한 법체계, 지리적 분포 등의 원칙을 고려하는 것에 찬사를 표하며,

IACA가 학술 활동에서 포용성을 증진하고 비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관심 국가 및 지역의 반부패 실무자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을 지지하며,

글로벌 부패측정 프로그램(GPMC)이 향후 부패 측정 및 반부패·청렴성 평가 조치의 효과성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국가 기관 및 국제 전문가들과 협력한 성과와 이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성, 청렴성 및 신뢰 강화에 기여한 점을 유념하며,

IACA가 OECD의 부속서 2 ODA 대상 국제기구 목록에 포함됨에 따라, 아카데미에 대한 핵심 예산(비지정) 기여금을 공적개발원조(ODA)로 보고할 수 있게 되어 IACA가 기부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기관이 되었음을 언급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반부패 실무그룹 활동에 IACA가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 학계 및 시민사회 간의 부패 예방 및 퇴치 분야 발전에 관한 모범사례와 전문 지식의 지속적인 교류 플랫폼으로서 IACA의 역할을 지지하며,

오스트리아공화국의 관대한 기여로 시행된 제1회 라틴아메리카 및 최빈국 대상 스페인어 과정(4월 개최)과 최근 아프리카 및 최빈국 대상 과정(9월 개최)을 포함해 총 9회에 걸친 온라인 IACA-UNODC 학생·청년 대상 반부패 학교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고 부패 척결에 있어 학생 및 청년의 중대한 역할을 강조하며,

2024년 11월 28일에 개최된 제1회 온라인 부패 예방 및 척결의 글로벌 동향과 과제 연례회의가 부패 퇴치 및 예방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준법 정신 및 공동 행동 촉진 관련 주요 과제 논의 및 혁신적 아이디어 공유의 장으로 기능했음을 강조하며 그 성과에 만족을 표하며,

유엔반부패협약(UNCAC) 당사국 총회 결의안 10/4호(부패 및 부패방지 체계의 효과성 측정 방법론 및 지표 관련)를 상기하며, 이는 "유엔개발 계획(UNDP) 및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 같은 반부패 활동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들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식을 교환하고 최첨단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혁신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당사국들과 협의하여 지식을 교환함으로써,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 등

방법론과 지표를 정교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당사국들이 부패 위험, 동향 및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부패 퇴치를 위한 정책 및 실제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한 점을 **상기하며**,

IACA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모든 분야 및 지역의 전문가,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전문가들에게 경제적이고 접근 가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IACA 프로그램 및 활동의 접근성은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IACA가 당사국, 서명국, 기타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기관, 민간 부문 및 자선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찬양하며**,

협정 당사국 및 기부자들이 기구의 임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자발적 재정적·현물 기여 및 기타 지원을 높이 **평가하며**,

IACA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기부 당사국 및 적절한 경우 그 국민이 누리는 혜택 및 할인 유형 및 범위 사이에 명확한 연계성을 확립하는 기존 인센티브 및 보상 제도를 **유념하며**,

개방형 정부간 작업반의 IACA 활동의 재정 문제 및 기타 행정적·실질적 측면에 대한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IACA 당사국들이 아카데미 활동, 사명 추진 및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서 ‘IACA의 친구들’ 비공식 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최해 온 데 대해 **감사함을 표한다**.

1. 2025년 10월 리비아의 가입을 **환영하며**, 사무국에 그 역량 범위 내에서 아직 IACA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 및 정부 간 기구들과 협력하여 그들이 본 기구의 정회원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그 의사 결정 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을 권장할 것을 **요청하며**;
2. 협정 서명국들에게 각국 법률에 따라 내부 절차를 이행하여 협정 당사국이 될 것을 **요청하며**;
3. 부패 방지와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반부패 노력 및 IACA의 목적, 권한, 포괄적 접근법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며**;
4. 부패 방지 및 척결, 자산 회수, 부패 혐의로 수배된 자의 송환에 관한

- 우수사례, 도전 과제 및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화를 강화하고 각국의 국내 법적 체계에 따라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포함한 이 분야의 국제적 협력 강화 장려를 **요청하며**;
5. 부패 방지 교육, 훈련 및 연구에 대한 투자가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역량 강화, 청렴성 및 책임성 증진, 부패가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임을 **재확인하며**;
 6. IACA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AOP13-Res-1에 따른 IACA 2025-2028년 업무 프로그램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며**;
 7. 모든 당사국 및 협정 서명국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부패로 인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기타 국제 이해관계자들과의 부문 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제공자로서 IACA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장려하며**;
 8. 요청 시 IACA가 국가들이 청렴 중심 교육 프로그램 및 계획 수립과 실행(관련 개혁 포함)을 적절히 지속 지원하도록 **요청하며**;
 9.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반부패 분야에서의 모범 사례, 지식 및 전문성 교환 플랫폼으로 IACA를 계속해서 적극 활용할 것을 **장려하며**;
 10. 본 협정의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에게 자국 반부패 기관과 IACA 간의 협력을 장려할 것을 **요청하며**, 부패 퇴치 및 준법 증진 이니셔티브에 관한 국가 반부패 기관과의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IACA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하며;
 11. IACA가 전략적 파트너, 특히 대학, 지역 및 국가 반부패 아카데미 및 기타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을 제공하며 공동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12. IACA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기타 관련 유엔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운영가능한 상태로 만들려는 결의 및, 특히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 촉진을 위한 추가 공동 활동 개발을 목표로 함을 **환영하며**;
 13. 또한 IACA가 다양한 국제 및 지역 기구, 전문 기관 및 조직(에그몽 그룹, EUROPOL, FATF, GlobE 네트워크, INTERPOL, 세계은행 청렴 프로그램

- 등)과의 협력 및 공동 활동을 강화하여 적절한 경우 맞춤형 및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며;
14. IACA가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아랍어로 석사 과정 개설을 추진 중인 점, 부패 유형 및 관련 범죄 연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 스포츠 분야의 청렴성 및 규정 준수 증진, 글로벌 반부패 거버넌스 강화 노력을 주목하며, 이에 관한 IACA 협정 당사국 및 서명국 모두가 IACA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유념하며;
 15. IACA가 반부패 교육 및 역량 강화에 전자학습 플랫폼, 가상 시뮬레이션 및 기타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포함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지지하며, 아카데미가 교육 활동의 접근성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에 디지털 혁신을 지속 통합할 것을 권고하며;
 16.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수익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기존 학술 프로그램 및 자원을 최적화하는 IACA의 지속적인 노력을 찬양하며;
 17. IACA가 2025-2028년 작업계획에 따라 박사과정 프로그램 출범 준비에서 이룬 진전을 추가로 찬양하며;
 18. IACA가 특히 세계 남쪽의 최빈국 및 신흥 경제국을 포함한 당사국들의 반부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지원과 개방형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장하며;
 19. IACA가 연구 및 분석 업무를 실용적으로 수행하고, 부패 방지, 규정 준수 및 공동 행동 분야의 우수 센터로서의 아카데미 위상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환영하며, 당사국의 요청 시 당사국의 필요와 우선 순위, 아카데미의 연구 및 분석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술 지원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며;
 20.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이 2025년 11월 13일 개최되는 제2회 IACA 온라인 부패 예방 및 퇴치의 글로벌 과제와 동향 관련 연례회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하며;
 21. 반부패 기관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 개발을 포함한 국제부패측정프로그램(GPMC)의 업무와 해당 방법론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 테스트에 참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를 환영하며, 당사국 및 서명국이 해당 연구에 참여를 고려하고 GPMC의 지속 운영을 위해 재정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장하며;

22. 사무국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하여, 자원 가용성에 따라 “부패 측정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라는 제목의 글로벌 컨퍼런스를 계속 개최하도록 권장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 고위급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혁신적 접근법 추진, 지식 교류, 공동 행동 촉진 및 부패 측정 분야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전담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보장하고, 부패 측정 및 반부패·청렴 조치 효과성 평가 분야의 우수사례 촉진에 기여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국 및 서명국으로 하여금 2025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될 제2차 글로벌 회의에 관련 기관을 참여시켜 우수사례 공유 및 과제 논의에 동참함으로써 해당 접근법 발전과 국제 협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권장하며**;
23. 국제부패측정프로그램(GPMC) 및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경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유엔개발계획(UNDP) 산하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며, 사무국이 과학적으로 엄격한 연구를 바탕으로 부패 측정 및 반부패·청렴 조치 효과성 평가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장하며**;
24. 당사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아카데미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다음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 교육, 전문 훈련 및 기술 지원이라는 핵심 분야에서 아카데미의 학술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에 당사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협정 당사국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강화;
 - 대면 반부패 학교, 워크숍 등 젊은 전문가들이 IACA의 학술 프로그램, 훈련 및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전용 장학 기금을 포함한 학생과 청년을 위한 이니셔티브 확대;
 - 반부패 분야의 연구 및 분석 역량 강화, 관련 국내·국제 대학 및 학술 기관과의 연구협력 모색, 당사국 관련 법집행기관 및 기타 당국의 요청 시 반부패 교육과정 설계, 시행 또는 개선 지원;
 - 부패 방지 및 척결 분야의 현안 대응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이고 성과 중심의 대화 강화 및 협력 증진;
25. 협정 당사국들이 자국민의 IACA 내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 공개 교육 및 기타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이를 위해 재정적·기타 지원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자국민에게 기존 우대 조치 하의 혜택(관련 수수료 할인 포함)에 대해 알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며**;

26. 본 협정의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총회, IACA 지역 여름 아카데미, 석사 프로그램 모듈 및 기타 활동의 개최 및 지원 제공을 자발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며**;
27. 이사회가 당시 재정 상황과 IACA의 직원들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고려하여 당시 정직 처분 중이던 학장의 보수 관련 결정을 재검토 하라는 일반사항 결의안(문서 번호: AOP12-Res-3)에 포함된 요청을 이행한 사실과, 해당 학장이 최근 제안한 우호적 해결 방안, 또한 관련 IACA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유념하며**;
28. 협정 당사국 및 서명국에게 모든 관련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 IACA를 홍보하고 지원할 것을 **권고하며**, IACA가 부대행사 주최 또는 공동 주최, 다자간 활동의 틈새를 이용한 소개 자료 배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잠재적 기부자와의 협력 증진, 구성원과의 현재 및 계획된 활동에 관한 소통 강화 등을 통해 기구 및 활동의 가시성 제고를 위한 조치 개발을 지속할 것을 요청하며;
29. 모든 당사국 및 협정 서명국이 필요한 경우, MACS, IMACC, MACD, MACC 학위를 포함한 IACA의 학위 프로그램을 인정하기 위해 자국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며**;
30. 인력 정책 수립 시 IACA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자격 요건과 원칙, 특히 기회균등, 차별금지, 성별 균형, 다양한 법체계, 지역적 분포, 갱신 등의 원칙을 고려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31. 사무국에 부패 방지 및 퇴치 분야에 권한을 가진 관련 지역 및 국제 포럼과 금번 당사국 총회 회의 결과를 공유하도록 **요청하며**;
32. 이사회에 각 회의 후 당사국들에게 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시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33. 2024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그 안에 포함된 권고 사항을 **유념하며**, IACA 관련 기관이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며**;

34. 사무국에 대해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각 총회 전에 IACA의 재정, 행정, 인력 현황 및 프로그램과 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서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35. IACA 관련 기관들이 본 결의안 이행 진척 상황에 대해 제15차 당사국 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원문 출처 :

https://www.iaca.int/images/PDF/AOP14-Res-5_on_General_Matters.pdf

회의 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www.btis.mom.go.kr)

□ 제11차 유엔반부패협약(UNCAC) 당사국총회 : 2025 도하 선언문

카타르, 도하 | 2025년 12월 19일

2025 도하 선언문 :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기술 지원, 국제협력 강화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결의문

유엔반부패협약(UNCAC) 당사국 총회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국제법 및 국제인권법, 그리고 부패 방지 및 척결 조치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증진·강화하고 부패 방지 및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과 기술 지원을 촉진·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반부패협약 제1조와, 당사국이 국가의 평등한 주권, 영토 보전 및 타국 내정 불간섭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는 제4조의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6번 및 세부 목표 16.5를 포함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상기하며, 또한 2024년 9월 22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제 79/1호인 ‘미래를 위한 협약(The Pact for the Future)’ 과 그 부속서 I, 그리고 결의안 제78/265호를 상기하고,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및 신흥 기술이 오늘날과 미래의 인류와 지구의 이익을 위한 진보에 큰 잠재력을 제공함을 강조하며, 강화된 규제와 인간의 감독, 강화된 국제협력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참여를 통해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고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개발 자원 조달에 관한 국제회의의 결과 문서를 유념하며, 당사국들이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협약에 따른 기존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하며,

2021년에 개최된 반부패 특별 총회에서 채택된 “부패 방지 및 척결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도전 과제 해결 및 조치 이행에 관한 우리의 공동 약속“이라는 제목의 정치 선언을 상기하며,

부패가 모든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현상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 제6장에 따라 수혜국과 공여국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역량 강화를 포함한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부패 방지 및 척결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부패 방지 및 척결과 국제적 도전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국제협력의 근본적인 역할을 강조한 유엔총회특별회의(UNGASS) 본문 제35항을 포함한 결의문 A/RES/S-32/1을 상기하며,

역량 강화, 제도 수립을 포함한 국제협력 및 기술 지원이 국가의 능력을 높이고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전문에서 인정하고, 자산 회복을 포함한 부패 방지 및 퇴치에 있어 국제협력과 기술 지원 촉진·지원을 당사국에 촉구하는 제1조와 경제 발전 및 기술 협력을 통한 국제협력 방법과 이행 조치를 규정한 제6장을 인지하며, 협약의 많은 당사국이 협약 제6장에 따라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전히 기술 지원과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당사국들이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정보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관 기관, 기구 및 부서 간의 통신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구축하도록 요구하는 협약 제48조(법 집행 협력)를 재확인하며, 디지털 기술이 법 집행 기관 간의 이러한 통신 채널 구축 및 강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당사국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기술 지원을 서로 계속 제공하도록 권장한 2017년 11월 10일자 결의문 제 7/3호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증진“을 상기하며,

당사국의 국가적 필요와 우선순위 및 사무국의 전략에 부합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유엔마약

범죄사무소(UNODC)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협약에 따른 기술 지원 제공을 더욱 강화하고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해 특히 유엔 시스템을 통해 조정, 통일성 및 통합의 효과 증진에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관련 유엔 기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부패 방지 및 퇴치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를 인정한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결의문 10/1 및 그 본문 제8항을 상기하며,

청렴성, 책임성, 투명성 및 행정·금융 효율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공하는 잠재적 기회와 사이버·디지털·신흥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관련 위험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협약 이행 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와 양자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혁신적인 수단을 통해 조율된 기술 지원을 지속 제공하는 당사국 및 기타 기부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사국들이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가 전문가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협의하여 개발된 객관적인 방법론과 지표를 활용하거나 적합한 경우 유엔 시스템 전반의 폭넓은 협력을 통해 자국 영토 내의 부패 위험을 측정하고 부패 대응 정책 및 실제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며, “부패 측정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향한 비엔나 원칙“에 명시된 대로 증거가 중대한 부패 위험을 시사하는 분야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법론과 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 2023년 12월 15일자 결의문 10/4를 상기하며,

국내 제도와 법치 강화를 최종 목표로 하여, 요청 시 그리고 당사국의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유엔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산하 연구소 등을 통해 양자 및 다자간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부패 척결에 있어 당사국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간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대화'와 '인공지능에 관한 독립 국제 과학 패널'의 출범을 상기하고, 관련 국제법, 인권 존중 및 국가적 법적 틀에 따라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독려하되, 이것이 유엔 메커니즘 내에서 국가에 새로운 의무를 창출하거나 다른 관련 포럼에서의 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1.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있어 역량 강화를 포함한 효과적인 국제 협력과 기술 지원의 필수적인 역할을 재확인하며;
2. 당사국들이 유엔반부패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부패 방지 및 척결 노력을 강화할 것과 사법공조 및 해당 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하여 국제, 지역, 소지역 및 양자 차원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하며;
3. 당사국들이 요청 시 그리고 수혜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춰 최빈국, 분쟁 영향국 및 소도상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지원에 초점을 맞춰 협약 제6장에 따라 물적 지원, 관련 기관 역량 강화 조치 및 훈련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적절한 경우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또는 양자·다자간 기술지원 제공자와 협력하여, 당사국들이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검토 메커니즘을 지속 활용하여 검토 대상국이 협의한 기술 지원의 구체적 필요를 식별할 것을 권장하며;
4. 당사국들이 참여에 걸림돌을 해결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 및 전략 개발 등을 통해 부패 방지 활동과 프로그램, 이니셔티브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참여, 리더십 및 대표성을 증진할 것을 권장하며;
5.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수단으로 사이버, 디지털 및 신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사국들이 협약에 따라 국내법 및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과 기술개발을 촉진, 지원, 장려하고, 적절한 경우 부패 예방 및 퇴치에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며;
6. 당사국들이 국경 간 부패 퇴치를 위해 적절하며 협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인도를 통한 조치, 수사 및 기소를 포함한 최대한의 협력 및 지원 제공, 그리고 유능한 반부패 당국

- 간 정보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환을 위한 디지털 및 혁신적 기술의 활용, 실무자 기반 네트워크가 개발한 기술의 활용을 통해 정보 교환을 지원하여 특히 유엔반부패협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틀 내에서, 그리고 글로벌 반부패 법집행기관 운영 네트워크(GlobE),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및 관련 지역 네트워크 등 실무자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협력, 특히 양자 및 다자간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7. 당사국들이 관련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사법 및 법 집행 기관,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여하는 기타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관련 범죄를 탐지, 수사, 기소하고 가상화폐의 부패 수익 은닉 및 세탁 용이성 디지털 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패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디지털 포렌식 기법 활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하며;
 8. 당사국들이 부패 위험, 추세 및 확산 정도 측정과 정책 효과를 평가에 자국법, 보유 역량 및 국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확성, 효율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것을 권장하며;
 9. 당사국과 기타 기부자들이 본 결의안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추가 자원(extrabudgetary resources)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사무소가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며;
 10.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책무와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도입과 관련된 우수사례, 도전 과제 및 성공·실패 사례 정보를 수집하여 당사국 간 전문 지식과 교훈 공유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도록 촉진할 것을 요청하며;
 11. 당사국들이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를 포함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효과를 강화할 것을 권장하며;
 12. 사무국에 본 결의안의 이행 진척 상황을 제12차 당사국 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원문 출처 :

https://track.unodc.org/uploads/documents/UNCAC/COSP/session11/COSP11_resolutions_unedited.pdf

회의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www.btis.mom.go.kr)

II. 옴부즈만 소식

 **목차**

홍콩 옴부즈만 3대 전략적 중점 분야로 지역사회에 성과와 실질적 혜택 제공

중국 홍콩 옴부즈만 사무소, 2025. 7. 2.

출처 : Ombudsman’s three strategic focuses deliver results and tangible benefits to community (Office of the Ombudsman Hong Kong, China, 2025.7.2.)

<https://www.ombudsman.hk/ombudsmans-three-strategic-focuses-deliver-results-and-tangible-benefits-to-community/?lang=en>

잭 찬(Jack Chan) 옴부즈만은 2025년 7월 2일 2024-2025 옴부즈만 연차보고서를 공개 발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사무소는 문의 처리, 민원 접수, 민원 재심사 및 재검토 등 모든 서비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찬 옴부즈만은 “지난해 4월 1일 취임 이후 세 가지 전략적 중점 사항을 추진해 왔다: (1) 중재를 강화하여 시민 불만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2)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여 고효율·고품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3) 지역사회 내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 제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계획은 공공 행정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정부와 시민 모두가 더 안정적이고 조화로우며 진보적인 사회를 조성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고 연도 동안 본 사무소는 중재를 통해 사상 최대인 555건의 사건을 종결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처리 사건의 33.5%를 차지했다. 중재를 통한 민원 해결에 소요된 평균 기간이 10.87일에 불과했음

을 고려할 때, 이는 시민들의 민원 해소 절차를 크게 가속화한 것이다.

부처 간 협력 증진 측면에서는 해당 연도 동안 3건의 직접 조사를 완료하고 이와 관련하여 141건의 민원 사건을 처리했다.

사무소는 긍정적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연례 옴부즈만 시상 제도 외에도, 올해 16개 부처 및 기관에 41건의 감사장을 발송하고, 민원인 19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공공 행정 개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긍정적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 및 중등교육기관에서 총 13회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사무소는 홍콩 국제옴부즈만 아카데미 설립을 적극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사무소 직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며, 사무소와 해외 옴부즈만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무소는 올해 8건의 직접 조사와 40건의 전면 조사를 완료하여 공공 행정 개선을 위한 총 254건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이다. 모든 권고 사항은 관련 정부 부처 또는 기관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일부는 추진 및 이행되었다. 2024년 11월부터 사무소는 조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관찰 사항을 제시하기 시작하여 이미 시행되었거나 더 신속히 시행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강조했다. 2025년 3월 31일 기준 106건의 관찰 사항이 제시되었으며, 관련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보고 연도 동안 사무소는 다양한 주제의 민원 4,402건을 접수했으며, 전년도 이월 건을 포함해 총 4,664건을 처리했다. 이 중 3,009건은 평가 후 종결되었고, 1,655건은 추가 조사를 거쳐 종결되었다.

**조지아 옴부즈만 사무소,
민간 기업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조지아 옴부즈만, 2025. 7. 23.

출처 : Training for private company employees (Public Defender(Ombudsman) of Georgia, 2025.7.23.)

<https://www.ombudsman.ge/eng/akhali-ambebi/treningi-kerdzo-kompaniis-tsarmomad-genlebistvis>

2025년 7월 2일과 7월 17일, 옴부즈만 사무소 평등부는 조지아 전역에서 운영 중인 대형 서비스업 기업(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본사 및 지점의 관리자, 인사 전문가 및 기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해당 기업과 직원들이 평등 및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참가자들은 평등권의 본질과 차별금지 법규의 적용 범위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 기준 검토와 함께, 특히 성희롱 및 직장 내 차별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옴부즈만 사무소의 관련 실무 사례, 특히 서비스업 종사 기업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사례가 논의되었다.

옴부즈만 사무소는 이러한 인식 제고 활동을 국가 내 평등 상황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간주하며, 다양한 분야의 더 많은 대표자들이 평등 문제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고 차별적 관행 예방에 기여할 의지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마 옴부즈만 사무소,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보호 진전상황 발표

파나마 옴부즈만 사무소, 2025. 10. 16.

출처 : Ombudsman's Office presents progress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The Office of the Ombudsman of the Republic of Panama, 2025.10.16.)

<https://www.defensoria.gob.pa/defensor-del-pueblo-presenta-avances-institucionales-ante-el-comite-del-acuerdo->

에두아르도 레블랑 곤살레스(Eduardo Leblanc Gonzalez) 옴부즈만은 에스카수 협정이행 및 준수지원 위원회(CAAC)에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사무소의 진척 상황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옴부즈만은 수년간의 휴면 기간 후 재가동된 환경사무국을 통해 수행된 기관의 업무를 강조하며, 환경 정의 관련 사안에 대한 감시, 대응 및 지원 업무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또한 물 접근성, 폐기물 관리, 아수어로 지역의 수자원 품질, 그리고 다리엔 주에서 이주로 인한 환경 영향 모니터링 측면에서 국가 인권기관(INDH)의 노력을 강조했다.

에스카수 협정 이행 및 준수를 지원하는 위원회 위원들은 파나마 방문 기간 동안 이 지역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계자들과 대화를 진행했다.

에스카수 협정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최초의 환경 조약이자 환경 보호 활동가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세계 최초의 협정이다. 이 협정의 목적은 환경 정보 접근권, 환경 의사 결정에 대한 공공 참여권, 환경 문제에 대한 사법 접근권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번 참여를 통해 옴부즈만 사무소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수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가 환경 관리에 인권 관점의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옴부즈만, 발달장애 성인의 불필요한 병원 입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및 선제적 계획 촉구

온타리오 옴부즈만 사무소, 2025. 11. 25.

출처 : Ombudsman calls for improved collaboration, proactive planning to prevent unnecessary hospitalization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Office of the Ombudsman Ontario, 2025.11.25.)

<https://www.ombudsman.on.ca/en/news/media-releases/ombudsman-calls-improved-collaboration-proactive-planni>

온타리오주 정부 ‘용납할 수 없는’ 상황 해결을 위한 24개 권고안 모두 수용

11월 25일 발표된 온타리오주 옴부즈만 폴 뒤베(Paul Dubé)의 최신 보고서는 복합 발달장애와 높은 수준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주정부의 체계적인 실패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긴 기간 동안 고통 속에 방치되었는지를 드러냈다.

옴부즈만의 조사는 지역사회 내 적절한 주거지와 지원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발달장애 성인과 관련된 55건의 민원을 검토했다.

“전환기의 실종(Lost in Transition)”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적절한 주거와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 기술과 행동이 악화되며 수년간 병원에서 고통받은 7명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

뒤베 옴부즈만은 보고서에서 “이는 단순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기술했다. “우리 사회의 특별히 취약한 구성원들은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고,

인도적이며 자비로운 환경에서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 고 적었다.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및 사회서비스부와 보건부 사이의 일관성 없는 협력으로 인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이들이 종종 묶인 채 병상에 남겨지는 경위를 강조한다.

옴부즈만은 “개인적 존엄성, 온전함, 자유 및 삶의 질은 그들을 위해 설계된 적이 없는 수용 시설 환경에서 훼손되었다” 라고 적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집중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훨씬 넘어선 시스템 내에서, 병원은 복합적 욕구가 가장 큰 이들에게 기본 주거지가 되어버렸다.”

조사 결과, 이러한 불필요하게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 기간 동안 개인들은 어렵게 얻은 생활 기술을 종종 잃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이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자 하거나 도울 능력이 있는 서비스 기관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한 청년은 2년간의 입원 기간 대부분을 침대에 묶인 채 약물 진정 상태로 지냈다. 다른 한 명은 사범 정신병원에서 5년을 살았으며, 때로는 하루에 최대 20시간 동안 결박되기도 했다. 50대의 한 남성은 8년 넘게 병원에서 살았으나, 마침내 집으로 옮겨진 지 3개월 만에 사망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복합적 욕구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임상 및 지역사회 지원 부족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옴부즈만은 24개의 권고 사항 중 양 부처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사전 예방적 시스템 계획을 위한 공동 포럼 구축
- 지역사회 내 더 많은 지원 주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자본 계획 개선
- 임상 및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프랑스어 가능 직원을 포함한 인력 채용 및 유지 개선

- 부문 간 데이터 수집 및 정보 공유 개선

각 부처는 이러한 권고 사항들을 전적으로 수용했으며, 이행 진척 상황을 6개월마다 옴부즈만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보고서에 대한 답변에서 양 부처는 부서 간 장벽을 유지하며 일하거나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환경에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지속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환기의 실종”은 위기 상황에 놓인 발달장애 성인들의 고충에 초점을 맞췄던 옴부즈만의 2016년 조사 보고서 “갈 곳 없는 처지(Nowhere to Turn)”의 후속 조치이다.

거의 10년 전 시스템에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옴부즈만은 부적절한 병원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권고안들이 특히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2023년 3월에 시작된 이번 특별 옴부즈만 대응팀(Special Ombudsman Response Team)의 조사는 120회 이상의 인터뷰와 수천 건의 문서 검토를 포함했다. 옴부즈만 사무소 직원들은 또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개별 사례들을 해결했으며, 보고서에 언급된 일부 개인들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이행하지 않는 연방 및 주정부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이사회, 2025. 12. 2.

출처 :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are not implement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ustrian Ombudsman Board, 2025.12.2.)

<https://volksanwaltschaft.gv.at/en/news/article/federal-and-state-governments-are-not-implementing-the-un-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

옴부즈만은 비시설화 전략을 촉구하며, 재정 문제로 포용이 좌절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베른하르트 아히츠(Bernhard Achitz) 옴부즈만은 국제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아 “오스트리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이행에 전념해 왔다. 그러나 연방 정부와 주정부 모두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비록 UNCRPD에 서명한 주체가 연방 정부지만, 장애인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주정부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구호가 아닌 권리

아히츠 옴부즈만은 “장애인에게는 자선이 아닌 권리가 필요하다”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목표는 장애인이 자기결정적 삶과 포용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포용이란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결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3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검토 과정에서 담당 전문가 위원회는 오

스트리아의 다수 결함을 확인하고 국제법상 요구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권고했다. 아히츠 옴부즈만은 “장애인들은 이러한 조치가 최대한 신속히 이행될 권리가 있다”며 “국가 검토를 통해 장애인에게 있어 일반적인 인권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오스트리아의 UNCRPD 위반 사례에 직면한다. 일례로, 행정 감시 업무 관련 긴급히 필요한 전동 휠체어나 개인 보조 서비스 같은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옴부즈만 위원회에 호소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옴부즈만 이사회와 그 산하 위원회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예고 없는 방문을 포함한 예방적 인권 감시를 담당한다. '국가 예방 메커니즘(NPM)'으로서의 그들의 헌법적 권한은 무엇보다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다.

감독 기관 및 예방적 인권 감시 사례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이사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아히츠 옴부즈만은 “해당 주정부나 책임 있는 사회보험 기관과 협의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개별적 해결책을 모색한다”며 “그러나 정치적 개입이 필요한 체계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이사회가 지적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설 퇴소: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벽 없는 충분한 지역 사회 기반 주거 옵션, 개인 보조 서비스 및 외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존 대규모 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더욱이 새로운 대규모 시설은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협약 당사국들은 특히 장애인이 거주지를 선택하고 어디서 누구와 살 것

인지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아히츠 옴부즈만은 “일정표와 재원을 포함한 탈시설화 전략이 부재하다” 고 지적했다.

생활 리듬: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요구사항에 위배된다.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외부 도움과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과 유사한 생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보조 서비스: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이사회는 개인 보조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니더외스터라이히주의 사례를 제시했다. 개인 보조사는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대신한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기결정권과 개별화된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친척 집에서 보내는 주말에 대한 “벌금“: 비엔나와 니더외스터라이히 주민들은 주말에 가족을 만나러 가려면 거주 시설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이사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아히츠 옴부즈만은 이러한 부재 규정을 대체 없이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비장애인들도 주말에 외출할지 집에 머무를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보조견: 일부 재활 시설 등에서 보조견 동반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는 물리적 환경, 특히 의료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평등하고 장벽 없는 접근을 보장한다. 제20조는 기술적·인적·동물적 지원을 통해 최대한의 독립성을 갖춘 개인 이동권을 표준화한다. 옴부즈만 이사회의 개입 이후 보조견은 대부분 시설에서 환영받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항상 준수되지는 않는다. 성교육 개념과 상담·의지할 수 있는 담당 인력이 부족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박(하룻밤 방문)과 가족생활을 할 권리가 제한되기도 한다.

방학 돌봄: 슈타이어마르크 주의 한 소녀는 급우들과 함께 방학 돌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특수학교를 거부하며, 이는 여름 돌봄에도 적용된다. “소녀를 장애인 시설로 보내서는 안 되며 급우들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포용, 즉 인권 존중은 금전적 여건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